

中國襪衣의 文獻的 考察

東宇專門大學 女性教養科

助教授 劉寬順

目 次

I. 緒 論	1. 襲衣·小斂衣·大斂衣의 稱
II. 文獻에 나타난 中國襪衣	2. 小斂의 節次
1. 襪衣의 種類	3. 大斂의 節次
2. 襪衣의 衣次와 色	IV. 結 論
3. 襪衣의 치수	참고문헌
4. 襪衣의 製作·使用法	ABSTRACT
III. 斂 衣	

I. 緒 論

民族固有의 文化는 그 民族의 生活風習이나 日常의 儀式속에 잘 나타나며 悠久한 歷史와 固有의 傳統이 있는 民族은 자신들의 獨特한 生活를 통해서 스스로의 生活文化를 創造한다. 우리는 한 民族의 精神이 깃들어 있고, 民族의 文化類型에 反映되어 오랜 歲月을 거쳐 내려오는 傳統的인 生活儀式인 儀禮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先人들의 意識과 人生觀을 알 수 있으며, 生活儀式의 規範이 되

는 禮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修身과 齊家의 手段과 理念으로 삼았고, 四禮書의 內容이 되는 「冠婚喪祭」중 喪禮를 어느 의식보다도 禮를 갖추어 정중히 치름으로써 중요하게 여겨왔다.¹⁾⁻⁵⁾

우리 祖上들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現世와 같은 生活를 來世에서 한다는 繼世思想을 믿어 왔기 때문에 死者를 극진하게 厚葬하여 死者에 대한 尊敬과 推仰을 表示하였으며⁶⁾, 祖上에 대한 崇拜가 두터웠기 때문에⁷⁾ 畏敬의 禮로서의 喪禮는⁸⁾ 民族의 生死觀, 來世觀, 靈魂觀, 祖上崇拜를 잘 나타내

1) 李樹鳳, 百濟文化圈域의 喪禮風俗과 風水說話研究 - 湖西·湖南地方을 中心으로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6, p.9.

2) 崔喆·韓玉洙·白弘基, 太白의 禮俗(下). 江原道, 江原日報社, 1977. p.171.

3) 呂重哲, “韓國近代社會의 民俗變化.” 韓國史學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史學研究室, 1980. p.335.

4) 劉寬順, “우리나라 襪衣에 관한 研究 - 朝鮮朝를 中心으로 -.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p.6.

5)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 志社, 1988. p.301.

6) 李種恒, “우리 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관한 研究.” 論文集(人文科學編). 第9輯. 國民大學校, 1975. pp.132-134.

7) 上揭書. p.133.

8) 竹內照夫, 四書五經, 東京, 平凡社, 昭和 50. p.53.

는 儀式인 것이다.⁹⁾⁻¹⁶⁾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고 사람이 最後로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인데¹⁷⁾⁻¹⁸⁾ 이러한 의식인 喪禮에서의 喪服이 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시되는 의복이라면, 袵衣는 尸身에 새로 갈아입히는 衣服, 死者의 平常服으로써¹⁹⁾ 죽은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므로, 死者에 대한 生者의 哀痛의 情과 恭敬과 慎重하고 정성스런 마음을 잘 반영한 옷이라고 볼 수 있다.
20)-22)

그런데 中國은 韓國과 地緣의 隣接하여, 古代로부터 相互間의 文化의 交流가 빈번하였으며²³⁾ 禮의 領域이 크고 넓어서, 국가의 권력, 사회적 도덕규정, 美風良俗들을 모두 禮 안에 포함시켜 통치와 교화의 방법으로 禮를 절대시 하였고, 禮를 기술한 「禮記」가 經書로서 존중히 여겨졌다.²⁴⁾ 이외에 「家禮」와 「儀禮」 등 많은 禮書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禮에 영향을 미쳤으며, 朱子의 「家禮」는 고려말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져 지배계층에서

준수할 것을 적극 권장한 것으로 보이며, 朝鮮朝에 들어와서 太宗이 朱子家禮에 따라 祠堂을 세우기를 王命으로 강요하는 등 儒式에 의한 禮制가 確立되었고,²⁵⁾ 조선중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피 지배층에 까지 적극 그 실행이 강요되었으며 조선 중기부터 그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그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론과 실천면에서 비로소 전국적으로 유교적 家禮가 보급되었고, 朱子의 家禮를 근본으로 하여²⁶⁾⁻²⁸⁾ 내용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안마다 각각 다르게 행하였고(家禮), 그 가운데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입혀진 책이 孝經의 四禮便覽이다.²⁹⁾⁻³⁰⁾

이런 과정에 의해 朱子의 「家禮」가 들어왔으며, 喪服의 制度가 朱子의 家禮를 따랐기 때문에,³¹⁾ 中國 袵衣가 우리나라 袵衣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朱子家禮를 중심으로 中國 袵衣의 種類, 衣次와 色, 치수, 製作

9) 李必英, "韓國古代的 喪禮儀式研究". 論文集(人文科學編). 第17輯. (忠南; 韓南大, 1987) p.257.

10)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p.193.

11)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9. p.147.

12) 何聯奎,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 p.85.

13) 李鍾桓, 前掲書. pp.123-124.

14) 石宙善, "李朝宮中儀式節次에 따르는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 同大論叢. 第5輯. (서울; 同德女大, 1975) p.8.

15)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16) 劉寬順, "韓國 袵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17號. 韓國服飾學會, 1991. p.169.

17) 金聖培, 韓國의 民俗. 日本, 成甲書房, 1982. p.218.

18) 魚塘, 朝鮮의 民俗文化と源流. 日本, 同成社, 1981. p.174.

19)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淑明女大 大學院, 1989. p.156.

20) 劉寬順, "江原道 地方의 現行 袵衣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6輯. 東洋專門大學, 1994. p.182.

21) 張基權, "禮의 精神과 活用". 中國學報. 第10輯. 韓國中國學會, 1969. pp.57-58.

22) 劉寬順, 前掲書. 1991. p.170.

23) 柳承國, "韓國儒學의 根本思想과 그 現代的 意義". 韓國의 民族文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8. p.59.

24) 南晚星譯, 禮記 上. 서울, 平凡社, pp.18-19.

2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1973. p.80.

26)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震檀學報. 第5卷. 1936. p.43.

27)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관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第8輯(自然編). 嶺南大學校, 1974. p.402.

28)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服飾. 第19號. 韓國服飾學會, 1992. p.12.

29) 張哲秀, 韓國 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11-16.

30)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서울, 高麗大 民族文化研究院, 1988. pp.5-6.

31) 李能和, 朝鮮女俗考. 京城, 翰南書林, 昭和2. p.110.

法과 使用法, 斂衣 등을 考察하여 우리나라 襪衣와의 비교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禮書는 「家禮」³²⁾와 「儀禮」,³³⁾ 「大明集禮」,³⁴⁾ 「文公家禮儀節」³⁵⁾ 등을 參考로 하였다.

II. 文獻에 나타난 中國 襪衣

1. 襪衣의 種類

각 문헌에 나타난 襪衣의 種類를 表로 제시해 보면 <表 1>과 같은데, 「家禮」에서는 大帶, 深衣, 袍襖, 汗衫, 袴, 襪, 勒帛, 裹肚, 幅巾, 充耳, 幪目, 履, 握手, 冒, 掩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³⁶⁾ 「家禮」의 영향을 받은 「文公家禮儀節」과 「家禮」를 비교해 볼 때, 다른 종류는 비슷하나 그 중에서도 「家禮」에 제시된 '掩'이 「文公家禮儀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文公家禮儀節」³⁷⁾에 제시된 衾은 「家禮」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1> 文獻에 나타난 襪衣의 種類

文 獻 襪 衣	家 禮	大 明 集 禮			文公家禮 儀 節	儀 禮
		唐	宋	庶人(唐·宋)		
頭 衣	幅巾 充耳 幪目 掩	充耳 面衣	面衣	幅巾 充耳 幪目	幅巾 充耳 幪目	幪 幪目 掩
表 衣	深衣			深衣	左同	
上 衣	袍襖 汗衫			汗衫	袍襖 左同	
下 衣	袴 勒帛			袴	左同 勒帛	
腰 帶	大帶			大帶	左同	
裹 肚	裹肚				裹肚	
手 衣	握手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足 衣	襪 履			襪 履	左同 左同	
其 他	冒				冒 衾	左同

위 表는 家禮. 卷 4. 喪禮 1. 張 5., 大明集禮. 卷 37. 張 2, 42.,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儀禮. 卷 12. 張 2의 記事에 依據하여 작성하였음.

32) 朱熹編, 家禮.

朱熹(朱子: 宋나라)가 家庭에서 일용하는 예절을 모아 엮은 책으로, '朱子家禮'라고도 하고 朱熹의 諡號가 文公이므로 '文公家禮'라고도 하는데, (서울大 圖書館編 奎章閣 韓國本 圖書解題集 參考.) 이후의 書名은 '家禮'로 통일해서 기술하기로 함.

33) 鄭玄注, 賈公彥疏, 儀禮.

34) 太祖撰, 大明集禮. (1369)

35) 丘濬輯, 文公家禮儀節. 仁祖4 (1626)

* 32-3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임.

36) 家禮 4. 喪禮 1. 張 5-8.

37)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大明集禮」에서는 종류가 많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唐·宋·庶人(唐宋을 같이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음) 등으로 분류하여 종류가 나타나 있고, 특히 面衣를 종류에 넣고 있는 점이³⁸⁾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儀禮」에서는 「家禮」에 제시된 掩을 볼 수 있고, 다른 문헌에서 充耳라고 나타나 있는 품목이 「儀禮」에서는 「璣」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文公家禮儀節」에 보이는 ‘冒’도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각 문헌에 모두 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 握手가 있다는 것을 <表 1>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위에서와 같이 「家禮」, 「大明集禮」, 「文公家禮儀節」, 「儀禮」에 제시된 범위내에서 襚衣의 種類를 살펴 보았는데, 각 문헌에 공통적인 종류로 幅巾, 充耳, 幘目 등이 있으며, 冒, 掩 등에 대한 논의도 빈번하므로 용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幅巾은 「家禮」에서 掩을 사용할 때 해당되는 품목이라고 하였고, 「文公家禮儀節」에서는 지금의 緩冒와 같으며 과거의 掩이라고 하였다.

充耳는 귀를 막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다른 문헌에서는 전부 充耳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儀禮」에서는 璣으로 표현되어 있다.³⁹⁾

幘目은 얼굴을 덮는 것이며, 幘의 곱에 대한 논의가 빈번한데 이 곱을 ‘覓’(覓<찾을 먹>과 동일음)이라고⁴⁰⁾ 표현하고 있다.

冒는 巾에 속한 것으로,⁴¹⁾ 巾보다 크고 尸身을 싸는 것, 즉, 尸身에 씌워 보이지 않게 全身을 감

추는 것으로써, 이것은 사람에게 혐오스런 생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納棺까지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⁴²⁾ 上體를 싸는 것을 ‘質’이라 하며, 下體를 싸는 것은 ‘殺’라고 한다.⁴³⁾ 또한 「禮記」에 의하면 사람이 60세가 되면 棺을 준비하고, 70세가 되면 사후에 쓸 옷과 기물 중에서 마련하기 힘든 것을 준비하고, 80세가 되면 옷과 기물 중에서 마련하기 비교적 쉬운 것을 준비한다. 90세가 되면 이미 준비한 물건들을 날마다 수리하며, 冒는 죽은 뒤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⁴⁾

掩에 대해서 「儀禮」註에 掩의 끝을 가르는 것은 턱아래에 매고, 돌아서 목뒤 가운데에 매기 위한 것이고, 冠은 높아서 편안하지 못하므로 棺中에 두면 定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士喪禮> 跽에 掩은 오즈음의 幘頭와 같은데, 다만 死者는 後脚을 頤의 아래에 매어서 生인과 다르게 한다⁴⁵⁾고 하였다.

이상에서 中國襚衣의 種類와 用途를 살펴보았는데, 襚衣의 종류 중에서 握手가 인용문헌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며, 각 종류들의 용도로 보아 襚衣의 용도는 몸을 잘 간수하고 싸서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襚衣의 衣次와 色

문헌을 통하여 襚衣의 종류에 따른 衣次와 色을 분류하면 <表 2>와 같다.

38) 大明集禮. 卷 37. 張 2.

39) 儀禮. 卷 12. 張 2.

40)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41)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印行, 中華民國 56, p.59.

42) 尚秉和·秋田成明編譯, 中國社會風俗史. 日本, 平凡社, 昭和 52, p.248.

43) 家禮 4. 喪禮 1. 張 5.

44) 禮記. 卷 5. 王制編.

45) 家禮 4. 喪禮 1. 張 5.

〈표 2〉 文獻에 나타난 禮衣의 衣次와 色

文獻 衣次·色		家禮	大明集禮			文公家禮 儀節	儀禮
			唐	宋	庶人(唐·宋)		
禮衣		衣次, 色	衣次, 色	衣次, 色	衣次, 色	衣次, 色	衣次, 色
頭衣	幅巾 充耳(瑱) 幘目 面衣 掩	緇	白纁 玄纁裏	緇經裏	白纁 帛	白綿 帛, 熟絹	白纁 緇, 經裏 練帛
表衣	深衣						
上衣	袍襖 汗衫						
下衣	袴 勒帛						
腰帶	大帶						
裹肚	裹肚						
手衣	握手	玄纁	玄纁裏	緇纁裏	帛	帛, 熟絹	玄纁裏
足衣	履					布 布	
其他	冒 衾						緇質, 經殺

위 表는 家禮. 卷 4. 喪禮 1. 張 5., 大明集禮. 卷 37. 張 2, 42.,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儀禮. 卷 12. 張 2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家禮」, 「大明集禮」, 「文公家禮儀節」, 「儀禮」에 禮衣의 종류에 대한 衣次와 色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각 문헌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充耳, 幘目, 握手, 掩, 冒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充耳는 재료가 白纁, 白綿 으로 제시되어 있어 모두가 흰 솜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⁴⁸⁾

幘目은 衣次의 색이 緇로 나타나 있고,⁴⁹⁾ 「儀禮」에서 특히 '經裏'라고 하였는데, 註에 "經은 붉다

는 것이다."라고 하여 緇의 색은 검고 속은 붉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大明集禮」의 庶人의 경우와 「文公家禮儀節」에서는 衣次가 帛 또는 熟絹이라고 하였다.

握手의 色은 玄纁, 緇纁으로 되어 있으며, 衣次는 帛과 熟絹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握手의 衣次는 비단이며, 色은 겉은 검고, 안은 붉게 하는 경우가 많다.

「大明集禮」에 독특하게 나타난 面衣가 唐에서는 玄纁裏이고, 宋에서는 緇經裏로 나타나 있어

46) 大明集禮. 卷 37. 張 2, 張 42.

47) 儀禮. 卷 12. 張 2.

48)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49) 家禮 4. 喪禮 1. 張 5.

겉은 검은 색이고, 안은 붉은 색임을 알 수 있었고, 襪과 履는 衣次가 布로 제시되어 있다.

掩은 「禮記」에 의하면 衣次가 練帛으로 나타나 있다.

冒는 「禮記」에 의하면 <喪大記>에 밝은 錦冒와 黼殺로 綴旁이 七이고, 大夫는 玄冒와 黼殺로 綴旁이 五이며, 士는 緇冒와 經殺로 綴旁이 三이라고 하였으며,⁵⁰⁾ 예를 들어 綴旁이 일곱이라는 것은 소매지 않은 쪽의 아래 위에 띠를 일곱개 달아, 이

것으로 매듭을 맺는 것을 다.⁵¹⁾

이상에서 제시된 품목에서 사용된 衣次를 보면 充耳는 白纈(白綿), 履의 襪은 布이며, 그 외의 품목은 錦, 帛, 熟絹으로 나타나 있어 주된 衣次는 비단임을 알 수 있었고, 색에 있어서 充耳는 白色이며, 그 외 幟目, 握手 등의 색은 緇經裏, 玄纁裏 등으로 보아 겉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 주된 색임을 알 수 있었고, 冒는 上이 검은 색, 下가 붉은 색이었다.

<표 3> 文獻에 나타난 禮衣의 치수

文 獻 치 수		家 禮	大 明 集 禮			文公家禮 儀 節	儀 禮
			唐	宋	庶人(唐·宋)		
禮 衣		치 수	치 수	치 수	치 수	치 수	치 수
頭衣	幅巾 充耳 幟目 面衣 掩	方尺二寸 廣終幅五尺	方尺		方尺二寸	棗核(대추씨 크기) 方尺二寸	左 同 廣從幅五尺
表衣	深衣						
上衣	袍 襖 汗 衫						
下衣	袴 勒 帛						
腰帶	大帶						
裏肚	裏肚						
手衣	握 手	長尺二寸 廣五寸	長尺二寸		長尺二寸 廣五寸	左 同	左 同
足衣	襪 履						
其他	冒 衾	質: 손까지의 길이 殺: 長三尺				質: 長이 손과 가지런함 殺: 발을 가림	

위 表는 家禮. 卷 4. 喪禮 1. 張 5., 大明集禮. 卷 37. 張 2, 42.,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儀禮. 卷 12. 張 2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50) 禮記. 卷 22. 喪大記.

51) 南晚星 譯註, 禮記(下). 平凡社, 1981. p.221.

3. 襪衣의 치수

문헌을 통하여 수의의 종류에 따라 치수를 분류하면 <表 3>과 같다.

<表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수의의 각 종류별로 치수가 모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각 문헌의 공통적인 품목에 대한 치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充耳는 棗核으로 대추씨 만한 크기라고 되어 있어, 귀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임을 알 수 있다.

幘目은 方尺二寸인 경우와 方尺五寸인 경우가 있어 치수의 차이를 보인다.

握手는 「家禮」, 「大明集禮」의 庶人편, 「文公家禮儀節」, 「儀禮」에서 모두 長尺二寸, 廣五寸으로 나타나 있고, 「文公家禮儀節」에서는 熟絹三幅이 소요되는데 每幅 당 長尺二寸, 廣五寸으로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大明集禮」의 唐나라편에서는 長尺二寸만 제시되어 있어 치수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冒는 冒質의 길이는 손까지 오도록 가지런하고 殺는 길이가三尺이라고 하였고 「儀禮」에서도 緇質은 길이가 손과 가지런하고 經殺는 발을 가린다고 하여 거의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掩은 「家禮」와 「儀禮」에 모두 廣終幅 五尺으로 되어 있고, 面衣의 치수는 「大明集禮」의 唐나라편에서 方尺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幘目的 치수는 폭이 尺二寸인 경우와 尺五寸인 경우가 있으며, 握手의 경우는 長尺二寸, 廣五寸으로 같고, 冒는 全身을 보이지 않게 쌀 수 있을 정도의 치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襪衣의 製作·使用法

문헌을 통하여 襪衣의 종류에 따른 제작법 및 사용법을 분류하면 <表 4>와 같으며 수의의 종류에 많이 나타나는 袍襖, 幘目, 握手, 冒, 掩등의 제작·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표 4> 文獻에 나타난 襪衣의 製作·使用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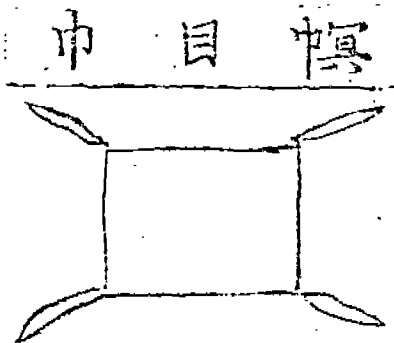
文 獻 製作·使用法		家 禮	大 明 集 禮			文公家禮 儀 節	儀 禮
			唐	宋	庶人(唐·宋)		
襪 衣		製作·使用法	製作·使用法	製作·使用法	製作·使用法	製作·使用法	製作·使用法
頭衣	幅 巾 充 耳 幘 目 面 衣 掩	暖帽와 制가 같음. · 솜을 둔다. · 네모퉁이에 끈이 있어서 머리 뒤에서 맨다. 그 끝을 가른다.				· 솜으로 채운다. · 네모퉁이에 끈이 있어서 머리 뒤에서 맨다.	· 솜으로 채운다. 그 끝을 가른다.
表衣	深 衣						
上衣	袍 襖 汗 衫					솜을 둔다.	

下衣	袴 勒帛						
腰帶	大帶						
裹肚	裹肚						
手衣	握手	양끝에 끈을 두어 손등에 서 맨다.				양끝에 끈이 있음.	
足衣	襪履						
其他	冒 衾	直裰과制가 같음.					

위 表는 家禮. 卷 4. 喪禮 1. 張 5., 大明集禮. 卷 37. 張 2, 42.,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儀禮. 卷 12. 張 2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袍襖는 다른 문헌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文公家禮儀節」에 솜을 둔다고 되어 있다.

幘目은 「家禮」와 「文公家禮儀節」에 솜을 두며, 네 모퉁이에 끈이 있고 사용법은 뒤에서 맨다고 되어 있다. 「文公家禮儀節」에 나타난 幘目的 형태는 <圖 1>과 같다. 또한 「儀禮」에서 幘目的의 “속은 쫘하고 組繫한다”고 하였는데, 註에 쫘는 絮(솜)로 채우는 것을 말하며, 組繫는 맨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疏에도 “四角에 繫를 두어 뒤에서 맨다.”고 하여 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다.



<圖 1> 幘目(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握手는 「家禮」에서 양 끝에 각각 끈을 두어, 손등에서 끈을 매게 되며, 「文公家禮儀節」에서도 양 끝에 끈이 있다고 하였다.

冒는 「家禮」에 의하면 그 제작이 直裰과 같고, 冒質의 반을 접어 한쪽 부분만 제매어 연결시키고 한쪽은 그대로 둔다⁵²⁾고 하였으며, 그 사용법은 우선 殺로서足を 싸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髻로 머리를 싸서 내려와 손이 있는 곳에서 가지런하게 한다고 하였다.

掩은 「家禮」와 「儀禮」에서 제작시 그 끝을 가른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襪履의 종류에 따른 제작·사용법을 보면 袍襖, 幘目은 안에 솜을 두며, 幘目은 각각의 모퉁이에 네 개의 끈이 있어 머리 뒤에서 매고, 握手는 양 끝에 2개의 끈이 있어서 손등에 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冒는 착용시 全身을 싸도록 하며, 掩은 끝을 갈라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同上.

Ⅲ. 斂衣

문헌을 통하여 襪衣와 관련이 되는 襲衣, 小斂衣, 大斂衣의 稱, 小斂具와 大斂具, 小斂·大斂의 節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襲衣·小斂衣·大斂衣의 稱

(1) 襲衣의 稱

「家禮」에서 襲衣의 稱에 대하여 楊氏 復은 “儀禮 士喪에 襲이 三稱인데, 三稱이란 것은 爵弁服, 皮弁服, 祿衣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爵弁服은 緇衣, 纁裳이고, 皮弁服은 白布衣, 素裳이며, 祿衣는 純衣를 뜻한다.”⁵³⁾

「大明集禮」에 의하면 襲衣의 稱에 대하여 周制에서는 上公은 九稱, 諸侯는 七稱, 大夫는 五稱, 士는 三稱이며, 「家禮」에서도 士는 襲衣가 三稱이고, 大夫는 五稱이고, 諸侯는 七稱, 公은 九稱이라고 하였다.⁵⁴⁾ 唐制에서는 三品 이상은 三稱을, 六品 이하는 一稱을 襲한다고 하였고, 庶人の 경우 唐·宋의 制가 모두 襲衣는 一稱이라고 하였다.⁵⁵⁾

「家禮」에 의하면 子羔가 襲할 때 三稱이며, 孔子喪에 襲이 十一稱이며, 「雜記」에 의하면 士는 襲이 九稱이라 하였으니 다 襲數가 같지 않은데, 이는 오직 꾸미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죽으면 애처로워서 衣衾을 두텁고 후하게 하고자 할 뿐이며, 이제는 簡易함을 좇아 襲에 衣服 一稱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2) 小斂衣의 稱

「家禮」에서 小斂에 尊婢 모두 19稱을 쓴다고 하였는데, 「大明集禮」의 周制에서는 諸侯·大夫·

士가 「家禮」에서와 마찬가지로 19稱이다.

「大明集禮」의 唐制를 보면 三品이상 官은 小斂衣가 19稱인데 朝服이 1稱이고, 나머지는 모두 常服이다. 가난한 사람은 각기 준비한대로 行하며 六品이하의 服은 1稱이다.

「大明集禮」의 宋制를 보면 品官의 小斂衣가 9稱이다.

또한 庶人の 小斂衣가 1稱이며, 死者가 소유한 옷에 의거하여 편한대로 사용한다.⁵⁶⁾

(3) 大斂衣의 稱

大斂의 稱에 대하여 「家禮」를 보면 士는 30稱이고 大夫는 50稱이며 冢은 100稱인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판단할 바가 아니며 「大明集禮」의 周制에서도 大斂의 陳衣가 諸侯는 100稱, 大夫는 50稱, 士는 30稱이라고 하여 「家禮」에서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大明集禮」의 唐制를 보면 三品이상의 服은 30稱인데, 각각 上服 1稱씩 장만하고 나머지는 모두 常服이며, 가난한 사람은 각각 준비한대로 행한다. 內喪에는 花釵衾을 장만하는데 한결같이 黃色으로서 겹을 하고, 素色으로서 안을 한다. 6品이하는 朝服, 公服, 常服을 각각 1稱씩 한다.

「大明集禮」의 宋制를 보면 品官의 大斂衣는 10稱이다.

庶人の 大斂衣에 대하여 唐·宋制 모두 3稱이며, 「家禮」에 의거하여 옷은 일정한 숫자가 없고, 衾은 綿을 둔 것을 쓴다고 하여 庶人の 경우는 稱의 숫자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王關仕. 儀禮服飾考辨. 臺灣, 文史哲出版社, 中華民國 66. p.33-39.

54) 家禮 4. 喪禮 1. 張 8.

55) 大明集禮. 卷 37. 張 41.

56) 大明集禮. 卷 37. 張 43.

2. 小斂의 節次

沐浴飯食이 끝나면 衣服을 襲하여 입고 그것이 끝나면 掩布로 얼굴과 머리를 싸서 보이지 않게 하고 양손과 양발을 묶고 棺로 全身을 싣는다.⁵⁷⁾ 그 후 尸身을 衣·衾·絞의 가운데 收藏하여 棺 속에 넣는 儀를 행하게 된다.⁵⁸⁾⁻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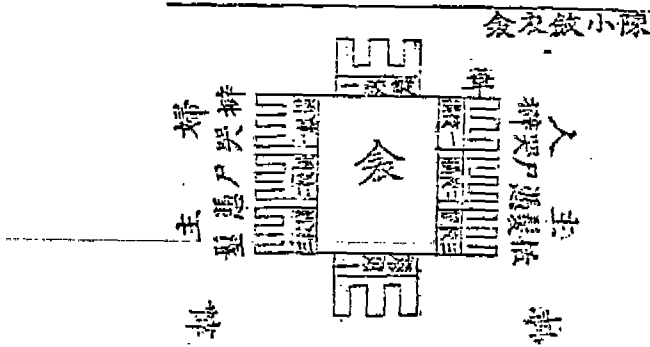
小斂의 禮는 죽은 다음 날에 행하는데, 東쪽에 차례로 殮衣를 진열하고 鋪絞衾衣를 들고 올라가서 尸身의 남쪽에 놓는다. 衾의 衾은 錦이고 諸侯는 篋席(점석, 竹席)·布絞·紵衾이고, 大夫는 蒲席·縞衾이며, 士는 篋席·縞衾인데,⁶⁰⁾ 衾은 모두

5幅이며 絞위에 편다. 絞는 布로 만드는데, 가로가 3. 세로가 1로써 衣복을 거두어 묶어서 衣복이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絞의 가로 셋을 아래에 두어 몸을 덮어싸서 서로 뗄 수 있도록 하고 세로 하나를 그 위에 두어 머리에서 발까지 덮어 몸 가운데에서 뗄 수 있도록 한다.⁶¹⁾

모든 斂은 正色이 아닌 것은 넣지 않고, 緝纁(치격, 즉, 細葛<세갈 : 고운 갈포>, 麤葛<추갈 : 거친 갈포>)을 말함), 紵衣 등은 퍼 놓지 않으며 小斂衣 중에 祭服은 거꾸로 하지 않는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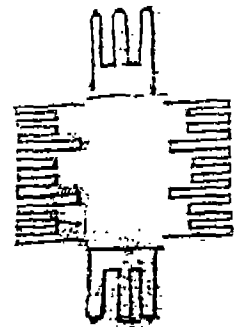
「家禮」와 「文公家禮儀節」에 나타난 小斂圖를 보면 <圖 2-1>,⁶³⁾ <圖 2-2>와 같다.

圖 斂 小



<圖 2-1> 小斂圖(家禮圖)

圖 斂 小



<圖 2-2> 小斂圖(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57) 谷田孝之, 中國古代喪服의 基礎的 研究. 日本, 風間書房, 昭和 45. p.25.

58) 上掲書. pp.34-35.

59) 國立編譯館, 中國的風俗習慣. 中華民國, 正中書局, 中華民國 74. p.107.

60) 尙秉和·秋田成明編譯, 前掲書.

61) 大明集禮. 卷 37. 張 3, 張 22.

62) 禮記. 卷 22. 喪大記.

63) 家禮. 家禮圖. 張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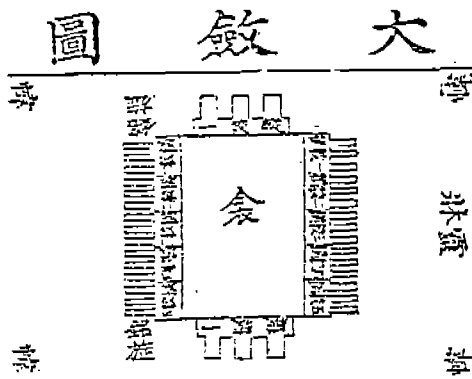
대개 염할 때에는 尸身의 左右에 각각 세 사람씩 위치하여 여섯 사람이 하는데 侍者가 손을 씻고 尸身을 들면 모두 도와서 床 위에 올려 놓는다. 먼저 枕을 빼고 緇를 펴고 옷을 접어서 머리에 깔며, 양 끝을 말아서 양 어깨의 빈 곳에 넣고 다시 옷을 말아서 양 정강이 사이에 끼우되 正方을 취한다. 그 후에 남은 옷으로 尸身을 덮는데 左衽하고 끈을 사용하지 않으며, 衾으로 쓴다.⁶⁴⁾

斂者가 尸身을 들면 男女가 따라 받들어서 堂中에 모시고 哭한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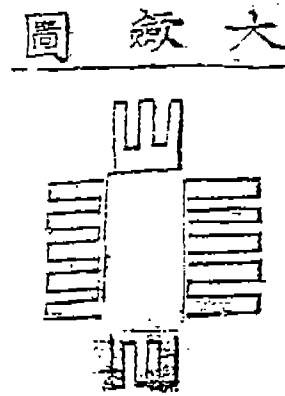
3. 大斂의 節次

大斂의 禮는 小斂 다음 날에 행한다. 일찍 일어나 동쪽에 차례로 옷을 진열하고 小斂의 儀式과 같이 한다. 侍者가 棺속에 衾을 넣고 네 모퉁이의 바깥 쪽으로 그 끝을 드리우며 絛를 매고 尸身을 들어 棺 속으로 모신다.

「家禮」와 「文公家禮儀節」에 나타난 大斂圖를 보면, <圖 3-1>,⁶⁶⁾ <圖 3-2>와 같다.



<圖 3-1> 大斂圖(家禮圖)



<圖 3-2> 大斂圖(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生時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이(齒) 그리고 잘라낸 손톱 발톱을 棺 모퉁이에 넣고,⁶⁷⁾ 다시 빈 곳에 옷을 말아서 넣어 요동하지 않게 하며, 衾으로 먼저 발을 덮고, 머리를 덮으며, 좌를 덮고 右를 덮어서 棺 속이 평평하게 차도록 한다.⁶⁸⁾

喪主·主婦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슬픔을 다하면, 髡匠人을 불러 髡경을 덮고 髡를 박고 柩衣로 덮는다.⁶⁹⁾

이상에서 襲衣, 大斂衣는 신분과 직위에 따라 稱이 각기 다르며, 小斂衣는 「家禮」와 「大明集禮」

64) 家禮 4. 喪禮 1. 張 13-14.

65) 大明集禮. 卷 37. 張 22.

66) 家禮. 家禮圖. 張 8.

67) 禮記. 卷 22. 喪大記.

68) 家禮 4. 喪禮 1. 張 16-17.

69) 大明集禮. 卷 37. 張 23.

의 周制에서 19稱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각자가 준비한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小斂, 大斂은 衣와 衾과 絞 등을 사용하여 尸身을 진정으로 정성껏 모시는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結 論

이상과 같이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中國禭衣의 內容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다.

1. 문헌에 나타난 禭衣의 種類로는 大帶, 深衣, 袍襖, 汗衫, 袴, 襪, 勒帛, 褻肚, 幅巾, 充耳, 幘目, 履, 握手, 冒, 掩 등이 있으며, 수의의 종류 중에서 握手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2. 禭衣의 衣次와 色을 보면 充耳는 白纁(白綿), 履와 襪은 布이며, 그 외의 품목은 錦, 帛, 熟絹으로 나타나 있어 주된 衣次는 비단임을 알 수 있었고, 色에 있어서 充耳는 白色이며, 그 외 幘目, 握手 등의 색은 纁經裏, 玄纁裏 등으로 보아 검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 주된 색임을 알 수 있었고, 冒는 上이 검은 색, 下가 붉은 색이었다.

3. 禭衣의 치수에서는 充耳가 대추씨 크기, 幘目이 尺2寸 또는 尺5寸, 握手가 長尺2寸 廣5寸, 冒는 質의 길이가 손까지 오도록 가지런하였고 殺는 3尺이었고, 掩은 廣終幅 5尺이었다.

4. 禭衣 중에서 袍襖는 숨을 넣었고, 握手는 양 끝에 2개의 끈이 있어서 손등에 땀으며, 幘目은 각각의 모퉁이에 있는 4개의 끈으로 머리 뒤에서 땀고 掩은 제각기 끝을 갈랐다. 그리고 冒에 있어서는 殺로 발을 싸서 올라오고 質로 머리를 싸서 내려와 손이 있는 곳에서 가지런하게 하여 全身을 싸다.

5. 斂衣에 있어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稱이 각기 다르며, 小斂衣는 「家禮」와 「大明集禮」의 周制에서는 19稱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각자가 준비한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大斂衣는 士는 30稱, 大夫는 50稱이었다. 小斂具에 있어서는 衾, 絞, 上衣, 散衣, 枕, 褥, 絹이 있었고, 大斂具로는 역시 衾, 絞, 上衣, 散衣, 枕, 褥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朱子家禮, 儀禮, 大明集禮, 文公家禮儀節을 중심으로 中國禭衣의 內容을 考察하였는데, 앞으로 文獻의 범위를 더 확대시켜 中國禭衣의 內容을 다각도로 深化시켜야 하겠으며, 본 연구의 結果와 우리의 傳統禭衣制度와의 比較研究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文獻

-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の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震檀學報. 第5卷. 1936.
- 南晚星譯註, 禮記(上). 서울, 平凡社, 1981.
- 南晚星譯註, 禮記(下). 서울, 平凡社, 1981.
-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9.
-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 研究.” 服飾. 第19號. 韓國服飾學會, 1992.
-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서울,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 石宙善, “李朝宮中 儀式節次에 따르는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 同大論叢. 第5輯. (서울; 同德女大, 1975)
- 呂重哲, “韓國近代社會의 民俗變化.” 韓國史學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史學研究室, 1980.
- 劉寬順, “우리나라 禭衣에 관한 研究—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 劉寬順, “韓國禭衣의 文獻의 考察.” 服飾. 第17號. 韓國服飾學會, 1991.
- 劉寬順, “江原道 地方의 現行 禭衣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6輯. 東宇專門大學, 1994.
- 柳承國, “韓國儒學의 根本思想과 그 現代的 意義.” 韓國의 民族文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8.

- 李能和, 朝鮮女俗考. 京城, 翰南書林, 昭和2.
- 李樹鳳, “壬亂 前後의 喪禮攷.” 壬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調查報告 第8冊.(淸州; 忠北大博物館, 1983)
-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關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第8輯(自然篇). (大邱; 嶺南大 出版部, 1974)
- 李鍾恒, “우리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關한 研究.” 論文集. 第9輯(人文科學篇). (서울; 國民大, 1975)
- 李必英, “韓國古代의 葬禮儀式 研究.” 論文集. 第17輯(人文科學篇). (大田; 韓南大, 1987)
- 張基燾, “禮의 精神과 活用”. 中國學報. 第10輯. 韓國中國學會, 1969. 8.
- 張哲秀,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 淑明女大 大學院, 1989)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서울, 一志社, 1988.
- 崔喆·韓玉洙·白弘基, 太白的 禮俗(下). 江原道, 江原日報社, 1977.
-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 丘濬輯, 文公家禮儀節. 仁朝 4(1626)
- 鄭玄注, 賈公彥疏, 儀禮.
- 朱熹編, 家禮. 英朝 35(1759)
- 太朝撰, 大明集禮. (1369)
- 禮記
- 國立編譯館, 中國的 風俗習慣. 中華民國, 正中書局, 1985.
- 王關仕, 儀禮服飾考辨. 臺灣, 文史哲出版社, 中華民國 66.
- 王宇清, 中國服飾史綱. 中華民國, 中華大典編印會印行, 中華民國 56.
- 何聯奎,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
- 谷田孝之, 中國古代喪服の基礎的研究. 日本, 風間書房, 昭和45.

- 金聖培, 韓國의 民俗. 日本, 成甲書房, 1982.
- 尚秉和·秋田成明編譯, 中國社會風俗史. 日本, 平凡社, 昭和 52.
- 魚塘, 朝鮮의 民俗文化と源流. 日本, 同成社, 1981.
- 竹內照夫, 四書五經. 日本, 平凡社, 昭和 50.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ture of Chinese Shroud

Yoo, Kwan S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Women Culture

Dong-U Junior College

Chinese shroud through literatures are as follows.

1. Taetae, Simeüi, P'oo, Hansam, Ko, Mal, Nukpaek, Kwatu, Ch'ungi, Pokkõn, Myokmok, Ri, Aksu, Mo and Öm were used the most in China.

2. The cloths of Chinese shroud were p'o, Paek, Kyon and Kum. The colors of the Chinese shroud were Hyon, Hun and white.

3. The size of the Chinese shroud is as follows. The size of the Ch'ungi was similar to the size of jujube kernel, the length of Myokmok was one Ch'ök two Ch'on or one Ch'ök five Ch'on, the length of Aksu was one Ch'ök two Ch'on and it's width was five Ch'on. The chil of Mo reached the hands and the length of Swae was three Ch'ök and the length of Öm was five Ch'on.

4. In Chinese shroud, cotton was put in P'oo, Aksu was tide by the strings at two corners. Myokmok was tied by the strings of four corners. The tip of the Öm was divided and

Mo wrapped the whole body.

5. The clothes of Soryom was nineteen Ch'ing. The clothes of Taeryom in Kun were one hundred Ch'ing in the Chinese. The impliment of Soryom were Kum, Kyo,

Sangeŭi, Saneŭi, Ch'im, Yok and Kyon in the Chinese shroud. In the case of the implement of Taeryom, the chinese shroud had Kum, Kyo, Sangeŭi, Saneŭi, Ch'im and Yok.